

제 11대 구국 농대 여학생회
96년 총노선

1300와성 여학우의 삶 곳곳에서
그들을 인간화,
새역사의 새주인으로 세워내는
농대여학생회

제11대 구국농대 자주적 여학생회

1. 총노선 수립에 앞서

총노선이 한해의 단절성이 심한 사업의 막을 이어주고 매 사업마다 한번씩 해보는 터트리기 사업이 아니라 1년동안 매 사업속에 끊임없이 녹아날 수 있는 핵심방향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도가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루지 못할 목표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현실에 근거해서 1300와성 여학우들의 정서를 파악하여 농대여학생회 몇몇 간부들의 굳어진 머리에서 급조된 총노선이 아니라 와성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 합의 과정을 통해 수립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2. 농대 여학우의 지금의 모습은?

우선 농대여학의 총목표는 와성여학우의 특수한 정서, 의식흐름, 그리고 현재의 요구와 지향을 이해하는 전제속에 수립되어야 하고, 그 목표가 여학우들이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공감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되는 전제이다.

농대여학우들에게 사양산업이 되어가는 농업 정세속에서 '농'이라는 학문에 대한 애착이 많이 떨어져 있고 더우기 전공을 살린다고 한들 특히 여자에게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생각한 대다수의 여학우들은 중앙 동아리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하며 어학당, 전산소, 등에서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려 한다.

이는 자신이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모순과 불합리를 느끼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개인적인 능력의 성장으로 해결하려 하는 현상의 결과이다.

자신의 삶을 자주적으로 살아가려는 이러한 모습속에서도 그것이 자신만의 문제가 되어버리고, 노력한 만큼 자신의 꿈을 성취하지 못하며 거기서 쓴 좌절감을 맛보고 한계라고 규정지어버리는 오류를 범하기 일쑤였다.

이런 농대여학우들의 본질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본질은 언제나 자신을 억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려는 자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그러한 모습이 현상으로 보여질때 개인화, 개별화 되었다고 왜곡되어 왔었다는 것이다.

이에 농대여학생화와 각과 여학생회가 지향해야 할 것은 그러한 본질을 이해하고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방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일단, 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농대여학우들이 다시 농대로 모여, 여성이라서 겪는 모순들을 공동체적인 생활속에서 좀더 넓은 시각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3. 96년 농대 여학생회에서 풀어야 할 과제

1,300와성 여학우의 삶 곳곳에서 그들을 인간화
새역사의 새주인으로 세워내는 농대여학생회

기본과제

- 1) 과여학생회의 건설, 강화로 실질적인 여학우의 의견 수렴 기구가 된다.
- 2) 일상사업 강화와 대중화
- 3) 연대사업의 강화

- 1) 과여학생회의 건설, 강화로 실질적인 여학우의 의견 수렴 기구가 된다.

▣. 단여운위의 강화

과여학생회장님들의 과여학우들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농대 여학생회의 실질적인 운영은 과여학생회장님의 역할임을 인식한다.

- ◆ 이를 위해서 일단은 운위 구성원들의 인간적인 결합을 위해 서로를 바로 아는 자리를 많이 마련한다.
- ◆ 단여운위 회의의 안착화와
- ◆ 지속적인 교양
- ◆ 과 여학우와 함께하는 정기적인 과 간담회를 실시한다.

▣. 과여학생회 건설

많은 한계를 가져오기도 했었습니다. 과도 회체계로 구성이 된다면 기층단

위의 여학우 하나 하나의 요구를 좀 더 수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벌써, 농경제학과, 천연섬유학과 등에서는 과여학생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서, 고민과 함께 과여학생회 회의의 안착화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여학생회 발전 소위원회를 제안한다.

★ 별첨 ★

과여학생회 발전 소위원회는

운위중 한두명이 결합하여 단여장과 함께 과여학생회 건설,
과여학생회 사업(운위 회의)을 고민하고 지도해낸다.
소위의 역할은 운위 회의가 좀더 발전된 형태로 되게 할 것이다.

2). 일상사업의 강화와 대중화

□. 몇년간 먼지만 날리고 있는 여학생 휴게실을 기방한다.

단순히 개방만 하고 버려둘것이 아니라 개방이후 단장, 홍보,농대 여학우들의 휴식처로 인식의 안착화 까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벌어나간다.

- ◆ 물품구비(소파, 침대, 책상 등)와 지속적인 청소로 안락한 휴식환경을 조성한다.
- ◆ 휴게실 내 여성신문 비치

□. 정기적인 행사를 마련하도록 한다.

- ◆ 취업간담회
 - ☞ 과차원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 것 같다. 단대에서는 과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의 방도로써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강사 추천 등을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 ◆ 성교육실시
 - ☞ 형태는 강연, 혹은 비디오 상영으로 여휴에서 상영할 계획....

□. 농대 특성에 맞는 사업

- ◆ 농활
 - ☞ 아동반, 여성농민반 주체를 마련해서 풍물 배우기 등을 하면서 활성화

한다.

◆ 체육대회

☞ 여학우들만이 참여할수 있는 경기 등을 고민한다.와성여성 팔씨름대회등.....

◆ 그 외 전체행사에 주체적인 참여로 농대 여학우가 하나되는 프로그램 등을 많이 고민한다

■. **농대 여학우들의 편리한 생활**

◆ 화장실 자판기 관리

◆ 과 방에서 금연 전면 실시

◆ 이 외 여학우들의 의사를 전면적인 수용으로 융통성 있게 대처하고 준비한다.

3) 연대사업의 강화

■. 작년 제1회 여성문화제에 이은 제6기 대동학교까지로 정신대 문제의 해결은 나로부터라는 광범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제 그 분위기를 몰아 다시 한번 **정신대 문제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널리 알려내며 '수요집회 가기', 후원금 모금 등의 방도로써 직접 실천한다.

■. 과 여학생회 건설을 위해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아지는 방도로써 **탁아**가 고민되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며칠 전 대동학교를 통해 벌써 두 개 과에서 탁아 후원회의 형식으로 꾸려지는 등 농대 여학우들의 탁아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후원회로 묶어진 학우들에게 끊임없이 탁아에 대한 교양으로 내용을 심화 시켜내고 자원봉사 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 또한 이들을 중심으로 다른 과로 전파시켜낸다.

◆ 과 별로 돌아가면서 탁아 방문을 안착화한다.



3.4월에는 이런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 3.27 한총련 백만학도 총궐기 ☉

김영삼정권의 대선지금을 완전공개시켜내고 민족의 교육을 외세에 떠넘기며 국민들에게만 교육비를 부담지우려는 반교육정책을 분쇄하는 길에 모든과가 과갓발을 앞세워 손에 손잡고 민주광장으로 함께 달려나갑시다. 농대는 12시에 사전 결의대회를 가집니다. (농대 사거리)

☉ 96 구국농대 새내기 환영 모꼬지 ☉

봄바다의 짝조름한 내음과함께 새내기 농학도와 현내기 농학도가 한판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 모꼬지 안가면 썰렁하쥬 ~~~

■ 언제 : 3월 29일 - 30일 ■ 어데서 : 구룡포 수련원

☉ 전교학생대표자회의 ☉

농대학생대표자회의의 한단계 위에 있는 거라고나 할까? 민족복헌의 모든 과학생회장님들이 모두 모여 올한해 민족복헌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자리입니다. 다 오시겠쥬?

■ 언제 : 4월 1일 오후 6시 ■ 어데서 : 4합 108호

☉ 대구경북지역총학생회연합(대경총련) 대의원대회 ☉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시겠쥬? 대구경북지역의 각단대 학생회장님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일반학우들도 많이 온다니까 모두 가서 구경합시다.

■ 언제 : 4월 5일 - 6일 ■ 어데서 : 영남대학교

☉ 4.9동일열사 추모기간 및 자주총(여)학생회 출범식 ☉

총(여)학생회의 출발을 알리는 출범식과 함께 작년 폭력경찰들에 의해 침탈당했던 이재문, 여정남 4.9동일열사 선배님의 추모비를 이만학우의 힘으로 재건립 해내는 날입니다.

추모비는 학우들의 힘이 없으면 절대 세워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두 선배님의 시대정신을 이어받고 힘차게 추모비를 세워냅시다.

■ 일정 : 4월 9일 추모비 재건립 및 4.9 추모제, 출범식 전야제
4월 10일 자주총(여)학생회 출범식

■ 어데서 : 민주광장

◆ 제 28대 구국농대 자주적 학생회 ◆